

15-16세기 朝鮮 白磁에 보이는 明代 磁器의 影響

이현정*

- I. 머리말
- II. 명대 자기의 유입 현황
- III. 조선 백자와 명대 자기의 양식비교
- IV. 15-16세기 조선 관요백자의 명대 자기 수용양상
- V. 맺음말

I. 머리말

15-1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명 황제와 주변국 왕을 군신체제로 맺는 전통적인 조공 체제였다. 조선은 당시의 국제질서를 수용하여 명과는 조공체제를, 유구와 일본에 대해서는 교린 정책을 실시하며, 대외 교류를 하였다. 이러한 대외 교류의 과정 속에서 상당량의 명대 자기가 조선에 직·간접적으로 유입되었다.

조선 백자의 발생과 발전에 명대 자기의 영향이 보인다는 것은 이미 선학들의 연구에서 지적된 부분이다. 한국도자사와 조선도자사 연구¹ 그리고 조선 전기 청화백자 연구에서 언급되었으

* 고려대학교 문화재학협동과정 석사과정 졸업

¹ 姜敬淑, 『韓國陶磁史』(一志社, 1989);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文藝出版社, 1991); 尹龍二, 『韓國陶磁史의 研究』(文藝出版社, 1993); 金英媛, 『朝鮮前期 陶磁의 研究-分院의 設置를 中心으로』(學研文化社, 1995); 同著, 『조선시대 도자기』(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방병선,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도자사』(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방병선, 이성주, 이종민, 전승창, 최종택 공저, 『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다시 태어나다』(국사편찬위원회, 2010).

며, 도자교류사 측면에서도 그 연구가 이루어졌다.³ 이를 통해 국내 조·명도자교류 관련 문헌기록의 발굴과 검토, 가마터 출토 명대 자기 편의 분석, 소비지 유적 출토 명대 자기의 소개, 현존유물과 명대 자기와의 양식 비교, 관요백자가 중국백자의 영향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에 대한 해석의 시도 등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첫째, 문헌기록을 통해 다수의 명대 자기가 국내로 유입되었음을 언급하면서도 문헌에 보이는 명대 자기의 양상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었다. 몇몇 先學들에 의해 일부 명대 자기의 실체를 밝히는 성과를 얻었지만, 다양한 명대 자기의 실체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⁴ 둘째, 자기교류는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내 뿐 아니라 국외 관련 기록의 발굴과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국내 문헌의 검토가 중심이 되었다. 셋째, 발굴 조사를 통해 새로운 명대 자기가 출토되었으나, 양식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가마터 발굴 출토품 및 기존의 소비지 유적 출토품으로 제한된 점이 있었다. 넷째, 중국에서의 관요 및 민요 자기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이를 토대로 현존유물과 명대 자기의 좀 더 구체적인 비교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첫째, 국내 및 국외 도자교류관련 문헌기록과 가마터 및 새롭게 보고된 소비지 유적출토품의 분석을 통해 당시 어떠한 명대 자기가 유입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조선 백자와 명대 자기의 양식을 비교 분석하여, 조선 백자에 보이는 명대 자기의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이를 종합하여 세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마다 조선 백자가 명대 자기 양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변화시켜 가는지 그 수용 양상을 고찰하고

2 李相起, 「朝鮮前期 靑華白磁」(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鄭良謨, 「朝鮮白磁, 靑華白磁」, 『韓國美術史의 現況』(圖書出版 藝耕, 1992); 尹傲靖, 「朝鮮 15-16世紀 靑畫白磁 研究」(梨花女子大學敎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2); 同著, 「朝鮮 15-16세기 靑畫白磁의 製作과 使用-문헌자료와 요지출토품을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250-251 (韓國美術史學會, 2006), pp. 315-360.

3 김영원, 「한반도 출토 중국도자」, 『우리 문화 속의 중국도자기』(국립대구박물관, 2004); 同著, 「조선 전반기 도자의 대외 교섭」, 『朝鮮 前半期 美術의 對外交渉』(예경, 2006); 同著, 「한국과 중국의 도자교류, 10~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中國陶磁』(국립중앙박물관, 2007); 전승창, 「조선 초기 명나라 청화백자의 유입과 수용 고찰」, 『美術史學研究』264 (韓國美術史學會, 2009), pp. 35-62.

4 김영원 선생은 『世宗實錄』 「五禮儀」 嘉禮序例尊爵條의 '白磁靑花酒海' 가 宣德年間の 白磁靑花雲龍文壺(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와 같은 중국산 전래품을 模寫했을 것이라 하였다. 이를 통해 세종 12년(1430)에 유입된 靑花雲龍白磁酒海가 운룡문이 시문된 청화백자호임을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김영원, 앞의 책[1995], p.142). 방병선 선생은 각종 도자 관련 문헌사료 및 제작상황 고찰을 통해 왕조실록에 보이는 조선 및 중국자기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여, 이러한 연구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였다(방병선, 앞의 책[2005]). 윤효정 선생은 조선 전기 '靑鍾' 관련 문헌기록의 검토를 통해, '靑畫沙大鍾', '靑花盞', '靑鍾'이 동일한 기명에 대한 異稱으로서 모두 청화백자 술잔에 대한 명칭이며, '靑鍾'은 술을 한 사람 정도 담을 수 있는 크기의 청화백자 술잔을 지칭한다고 하였다(尹傲靖, 앞의 논문[2006], p. 325).

자 한다. 이를 통해 당시 유입된 명대 자기의 양상과 그 영향 그리고 15-16세기 조선 백자가 명대 자기 양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각 시기별 특징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 시기 조선 백자에는 원대 자기의 영향도 보이는데, 명대 자기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조선 백자에 보이는 원대 자기의 요소 또한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당시 유입된 명대 자기는 크게 경덕진 백자와 용천요계 청자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조선 백자와 주로 관련성이 보이는 경덕진 백자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명대 자기의 유입 현황

1. 문헌기록

문헌기록에 보이는 유입된 명대 자기의 양상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명대 자기의 유입 기록은 15세기 전반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별로는 명, 유구, 일본을 통해서 유입되었다.⁵ 명과의 교류에서는 明使가 자기를 진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세종대에는 宣德帝에 의한 다섯 차례의 직접 하사도 있었다.⁶ 그 외 조선 사절이 북경에 오가는 길에 廣寧에 있던 遼東鎮守 王狗兒의 厚紙 요청을 들어주고, 그로부터 沙鍾을 받아오기도 했다.⁷ 세종 21년에는 민의생이 사은사로 중

⁵ 옛 유구였던 沖繩(오키나와)에서는 막대한 양의 중국도자기가 전 지역에 걸쳐 발견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14세기 중엽-15세기의 것이며, 국내 상층계급의 수요품과 국외 진상품으로서 사용되었다(三上次男, 『沖繩出土の中世中國陶磁について—中世沖繩と中國陶磁貿易の接点を求めて』, 『陶磁貿易史研究』上: 東アジア・東南アジア編 [東京: 中央公論美術, 1987], pp. 200-224). 일본의 중세유적에서도 15-17세기 초의 명대 자기들이 다수 출토된다(謝明良 著, 『美術考古叢刊 6 貿易陶磁與文化史』, [允晨文化實業股份有限公司, 2005], p.319). 일본은 당시 자기를 생산해내지 못했고, 중앙요로서 瀬戸(세토), 지방요로서 越前(에치젠)·信樂(시가라키)·丹波(탄바)·備前(히젠)의 陶器가 융성하고 있었다(矢部良明, 『日本陶磁の一万二千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당시 유구와 일본을 통해 유입된 자기는 명대 자기임이 분명하다.

⁶ 『세종실록』에는 선덕제에 의해 하사된 경우가 모두 네 차례로 기록되어 있다(『世宗實錄』卷41 世宗 10年 7月 19日 己巳條, 『世宗實錄』卷44 世宗 11年 5月 2日 丁未條, 『世宗實錄』卷46 世宗 11年 11月 2日 甲辰條, 『世宗實錄』卷49 世宗 12年 7月 17日 乙卯). 그런데 『明宣宗實錄』卷61 宣德五年 正月 戊午條에는 “朝鮮國王李海遣陪臣李澄等貢馬及方物, 謝賜瓷器.”(조선국왕 이도가 배신 이징 등을 보내 말과 방물을 바치므로, 자기를 사사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 세종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은 또 한 번의 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징은 세종 11년(1429) 11월 12일(갑인)에 사은사 판부사로서 부사 총제 김맹성과 함께 북경에 갔다가 다음해 4월 23일(임진)에 돌아왔으므로, 이때 선덕제가 하사한 자기가 조선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다.

⁷ 무술년(태종 18년)에는 사은사 원민생이, 기유년(세종 11년)에는 계품사 함녕군 이인이 각각 왕구아로부터 사증을 받아왔다(『世宗實錄』卷86, 世宗 21年 9月 1日 丙午條).

표 1 문헌기록에 보이는 유입된 명대 자기의 양상

流入時期		流入된 明代 磁器	種類	器形	文樣 및 裝飾 技法	流入 經路	出典
太宗 8년 (1408, 永樂6)	4月17日(乙未)	粉色砂器	白磁			明使	『朝鮮王朝 實錄』
		酒器		酒瓶 혹은 注子			
太宗 17년 (1417, 榮樂15)	6月12日(丙申)	畫鍾	靑畫白 磁	蓋 또는 鉢		明使	
	7月21日(甲戌)	暗花粉色茶鍾 1	白磁	蓋 또는 鉢	얇은 음각으 로 문양표현		
		茶瓶 1		瓶			
世宗 卽位年 (1418, 永樂16)	8月 14日(辛卯)	靑磁器 10事, 靑磁花瓶 1口	龍泉窯 系 靑磁	瓶		琉球	
	8月 22日(己亥)	沙鍾	白磁	蓋 또는 鉢		朝使 (王狗兒)	
世宗 5年 (1423, 永樂21)	1月 28日(庚戌)	花磁酒器 2		酒瓶 혹은 注子		日本	
		磁白磁羅 300介, 磁白小鉢 10介	白磁	小鉢			
	9月 24日(壬寅)	靑磁盆 70箇, 白 磁碗 大小 20箇	靑磁, 白磁	화분, 椀		日本	
	10月 15日(壬戌)	白磁茶椀 10箇 靑磁茶椀 30箇, 靑磁盤 30箇	龍泉窯 系 靑磁	椀, 접시		日本	
世宗 8年 (1426, 宣德1)	11月 1日(庚寅)	磁椀1000		椀		日本	
	12月 14日(癸酉)	磁椀1000箇		椀		日本	
世宗 9年 (1427, 宣德2)	1月 13日(壬寅)	沙鉢100介	白磁	鉢		日本	
	3月 27日(乙卯)	沙盤29箇, 沙鉢 180箇, 沙楪290 箇	白磁	鉢, 접시		日本	
	4月 24日(壬午)	粉色沙鍾1	白磁	蓋 또는 鉢		明使	
世宗 10年 (1428, 宣德3)	7月 19日(己巳)	白素磁器 10卓	白磁			明使 (宣德帝)	
		白磁靑花大盤 5 箇, 小盤 5箇	靑畫白磁	접시			
	8月 1日(庚辰)	白磁盤 4箇	白磁	접시		明使	
	8月 11日(庚寅)	磁鍾 1事	白磁	蓋 또는 鉢		明使	
世宗 11年 (1429, 宣德4)	1月 27日(甲戌)	靑畫白磁鍾, 白磁畫鍾	靑畫白磁	蓋 또는 鉢		明使	

世宗 11年 (1429, 宣德4)	5月 2日(丁未)	白磁羚羊茶鍾 30 介	靑畫白磁	盞 또는鉢	羚羊文	明使 (宣德帝)	『朝鮮王朝 實錄』
		白磁吧茶瓶 15介	靑畫白磁	瓶	芭蕉文		
	5月 4日(己酉)	暗花靑鍾 4事	靑磁	盞 또는鉢	얇은 음각으 로 문양표현	明使	
	6月 10日(乙酉)	磁靑花大鍾 1事	靑畫白磁	盞 또는鉢		明使	
	7月 15日(己未)	靑花磁器	靑畫白磁			明使	
		螺盃		소라 형태의 盞			
	7月 18日(壬戌)	暗花鍾 4事	白磁	盞 또는鉢	얇은 음각으 로 문양표현	明使	
	11月 2日(甲辰)	白磁器 15卓	白磁			明使 (宣德帝)	
		白磁靑花大樑 4 事	靑畫白磁	大樑		明使	
12月	沙鍾	白磁	盞 또는鉢		朝使 (王狗兒)		
世宗 12年 (1430, 宣德5)	4月 23일	瓷器	白磁			朝使 (宣德帝)	『明宣宗實 錄』
	7月 17日(乙卯)	靑花獅子白磁卓 器 3卓	靑畫白磁		獅子文	明使 (宣德帝)	『朝鮮王朝 實錄』
靑花雲龍白磁 酒海 3箇		靑畫白磁	壺	雲龍文			
世宗 13年 (1431, 宣德6)	11月14日(乙亥)	靑磁盃 1事	龍泉窯 系靑磁	盃		琉球	
世宗 14年 (1432, 宣德7)	6月 4日(辛卯)	暗花磁樑	白磁	접시	얇은 음각으 로 문양표현	明使	
世宗 21年 (1439, 正統4)	8月 이후	畫鍾	靑畫白磁	盞 또는鉢	花唐草文	私貿易	河演, 『敬 齋集』
文宗 卽位年 (1450, 景泰元 年)	8月 5日(丙子)	靑畫鍾 6事	靑畫白磁	盞 또는鉢		明使	『朝鮮王朝 實錄』
	8月 6日(丁丑)	靑畫白鍾 5事	靑畫白磁	盞 또는鉢			
		紫色鍾 6事	單色釉	盞 또는鉢			
		畫碗子 10事	靑畫白磁	碗			
		純靑小碗子 10事 , 純靑酒注 1事	單色釉	小碗, 注子			
		大中小樑 60事		접시			
		靑畫沙盤 9事	靑畫白磁	접시			
		靑畫臺盞 1事	靑畫白磁	잔과 잔받침			
純靑鍾 6事		單色釉	盞 또는鉢				

文宗 卽位年 (1450, 景泰元年)	8月 6日(丁丑)	紫椽 27事	單色釉	접시		明使	『朝鮮王朝 實錄』
		花茶鍾 6事		盞 또는鉢	花文		
		靑苗金酒注 1把	靑畫白磁	注子	자기위에 금 을 붙이거나 덧씩우는 장 식기법		
		靑畫白堤碗 10事	靑畫白磁	碗			
	靑畫茶鍾 6事	靑畫白磁	盞 또는鉢				
	10月 7日(丁丑)	靑磁酒具同臺	龍泉窯 系 靑磁	잔과 잔받침		日本	
成宗 1年 (1470, 成化6)		白地靑花盤 20個, 白地靑花碗 20個	靑畫白磁	접시, 碗		琉球	『歷代寶案 第一集』第 41卷
		靑盤 20個, 大靑 碗 50個, 小靑碗 100個	靑磁	접시, 碗, 小 碗			
		白碗 1雙	白磁	碗			
成宗 2年 (1471, 成化7)	12月 12日(己卯)	染着鉢 10枚		鉢		日本	
		白鉢 10枚	白磁	鉢			
成宗 5年 (1474, 成化10)	12月 24日(乙巳)	靑磁大碗 2口	龍泉窯 系 靑磁	大碗		日本	
成宗 6年 (1475, 成化11)	5月 12日(庚申)	畫器	靑畫白磁			私貿易	
成宗 7年 (1476, 成化12)	8月 24日(甲午)	器皿				私貿易	
成宗 8年 (1477, 成化13)	閏2月 10, 13, 14日	靑畫器, 靑畫磁 器, 畫磁器	靑畫白磁			私貿易	『朝鮮王朝 實錄』
	6月 6日(辛丑)	種樹器靑磁 1對, 靑磁香爐 1箇	龍泉窯 系 靑磁	香爐		琉球	
成宗 11年 (1480, 成化16)	6月 7日(丙辰)	靑磁酒海 1箇, 靑磁鉢 2枚	龍泉窯 系 靑磁	壺, 鉢		琉球	
成宗 14年 (1483, 成化19)	7月 26日(丙辰)	磁器				明使	
成宗 25年 (1494, 弘治7)	5月 11日(戊戌)	靑瓷嗽器 1箇	靑磁			琉球	
		付嗽茶碗 1箇		碗			
中宗 5年 (1510, 正德5)	9月 26日(己卯)	畫器	靑畫白磁			私貿易	

국에 갔을 때, 개인적으로 화종을 구해오기도 하였다.⁸ 15세기 후반이 되면 사무역을 통해서도 명대 자기가 유입되었다.

유입된 명대 자기의 종류에는 백자와 청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沙鍾·磁椀 등의 '沙', '磁'가 붙어 표기된 경우에는 자기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 유입된 자기 대부분이 백자와 청자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 또한 백자 혹은 청자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粉色沙器·暗花粉色茶鍾·粉色茶鍾·粉色沙鍾 등의 '분색'의 자기, 花磁酒器, 紫色鍾·純青鍾 등의 자색과 순청색의 자기가 유입되었다.

분색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청자나 청화백자일 것이라고 추정되어 왔다.⁹ 중국의 경우 '粉色'이란 용어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 비슷한 용어로 '粉靑'과 '粉定'이 있는데, '분정'은 靑玉과 같은 靑綠粉潤한 자기의 유색을 뜻하는 것으로, 청자를 의미한다.¹⁰ '분정'은 송이 남도 후에 경덕진에서 소조된 백자로, 유색이 분색인 것이 송 정요의 제품과 같아 '분정'이라고 칭하게 된 것이다.¹¹ 곧 분정은 북송의 정요 백자와 남송의 경덕진 백자를 통칭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분색'이 자기의 유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분색사기가 정확히 명대에 제작된 어떠한 자기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조선의 경우, 다음의 두 사료가 주목된다. 두 사료는 태종이 국자박사로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청화종을 보위에 오른 후 성균관에 하사하였는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 깨어져 없어졌고, 정인지가 이러한 사정을 세종에게 아뢰자 세종이 성균관에 자기와 술, 생선, 고기 등을 하사하였던 사건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다.

... 옛적에 태조께서 잠저에 있을 때에 만아들에게 명하여 학업에 힘쓰라 하였고, 오직 우리 태종 전하께서 아름다운 문덕을 건주어, 과거에 오르셨다. 학관에 있을 때 화종이 있었는데 ... 태종이 친히 따라 드셔서 아직 손 때가 남아 있다 ... 후대에 전해지다가 불행히도 종이 깨어져 이지러져서 빈 갑만이 있게 되어, 진실로 사문이 크게 한탄하였다. 하루는 겸대사성박사 정인지가 (이러한 사정을) 왕에게 상달하였다. 그런즉 御寶인 粉色罇罍四事, 은으로 단장한 畫鍾, 粉鍾 各二事를 모두 갑까지 갖추어 하사하였다. 아울러 九醞 150 器와 마른 돼지고기 몇 구, 물고기 몇 마리를 주었고, 사부학당에까지 또한 술과 안주를 하사하였다 ...¹²

⁸ 尹傲靖, 앞의 논문(2006), p. 321.

⁹ 방명신, 앞의 책(2005), p. 20.

¹⁰ 陸錫興 主編, 『中國古代器物大詞典—器皿』(河北教育出版社, 2001), p. 116.

¹¹ 陸錫興 主編, 위의 책, p. 92, 115.

¹² 尹祥, 『別洞集』, 別洞先生集卷二, 記. "...昔在太祖潛邸之日. 爰命聖胤. 勤于學業. 惟我太宗殿下試謄文德. 遂登科

靑畫沙大鍾 2事, 白沙大鍾 2事, 白沙大尊 4事와 술 150병 및 생선과 고기를 성균관에 하사하고, 또 술과 고기를 사부 학당 유생들에게 하사하였다. 처음에 이조 판서 정인지가 아뢰기를, “태종께서 성균관을 잡지 때 처음 베풀하던 곳이라 하여 청화사대종을 하사하셨는데 관중에서 오래 전하여 보물로 삼아 오다가 뒤에 불행하게도 깨져 없어졌사오니, 원하옵건대 다른 주기를 하사하셔서 태종의 뜻을 잇게 하시옵소서.” 하였으므로, 이번에 하사하게 된 것이다...¹³

두 사료에는 자기의 명칭이 나오는데, 문집에서는 분색준뢰 4사, 화종과 분종 각 2사로 기록되어 있고, 실록에서는 청화사대종 2사, 백사대종2사, 백사대준4사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분색사기와 백자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분색사기는 백자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분색사기가 유입된 시기는 태종대(1400-1418)에 세 건, 세종대에 한 건인데, 명의 경우 이 시기는 永樂年間(1403-1424)과 宣德 2년(1427)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제작상황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우리 조에 부랑현 경덕진에 전하여, 영락·선덕기간 사이 내부에서 (자기를) 소조하였는데 지금도 귀하다. 당시 첨백이 가장 일반적이며, 소마리청이나 선홍으로 꾸민 자기도 있다.¹⁴

이를 통해 당시 백자가 일반적으로 여겨질 정도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분색사기는 영락연간과 선덕 초기의 경덕진 관요 혹은 민요에서 제작된 백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유입된 명대 자기의 기형에는 완, 잔, 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병, 주기, 주자, 호, 반(접시), 향로, 나베¹⁵ 등도 유입되었다. 문양에는 화문·화당초문, 파초문 등의 식물문과 사자문, 운룡문,

第. 游於學館者有年. 時有畫鍾...太宗蓋嘗親御. 手澤猶存...後來持守不謹. 鍾乃缺裂. 但有空奩耳. 是誠斯文之大可歎也. 一日. 兼大司成臣鄭麟趾以博士. 狀達于宸聰. 卽以御寶粉色罇壘四事. 銀粧畫鍾粉鍾各二事. 皆具襲幅藏奩以賜之. 仍頒九醞百有五十器. 乾猪幾口. 海魚幾尾. 波及四部學堂. 亦賜酒饌...”

¹³ 『世宗實錄』卷117 世宗 29年 9月 1日 庚寅條. “賜靑畫沙大鍾二事, 白沙大鍾二事, 白沙大尊四事, 酒一百五十瓶及魚肉于成均館. 又賜酒肉于四部學堂諸生. 初. 吏曹判書鄭麟趾啓曰 太宗以成均館爲龍潛始仕之地, 賜靑畫沙大鐘, 館中相傳爲寶, 後不幸而破. 願賜他酒器, 以繼太宗之意. 故有是賜...”

¹⁴ 王世懋, 『窺天外乘』. “我朝則傳說於浮梁縣之景德鎮永樂宣德間內府燒造迄今爲貴其時以驪眼, 牯白爲常, 以蘇麻離靑爲飾, 以鮮紅爲寶.”

¹⁵ 나베는 일종의 소라를 가공하여 만든酒杯이다. 그 기원은 한 대까지 올라가지만, 唐宋시대에 유행하였다. 송대에는 천연 소라껍질 뿐 아니라 자기로도 소조하였으며, 河北省定縣靜志寺北宋太平興國2年(977) 5號塔基에서 한 건의定窯白磁螺盃가 발견되었다(陸錫興主編, 앞의 책[2001], p. 271). 이를 감안할 때, 명대에도 백자나베가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문헌이나 명대 출토품이 없어 그 양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영양문 등의 동물문이 유입되었다.

장식 기법으로는 암화와 묘금이 있는데, 먼저 암화기법은 “평조는 또한 암화라고도 한다.”¹⁶⁾ 는 기록을 통해 암화란 열은 음각으로 문양을 표현하는 기법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苗金이란 자기 위에 금을 붙이거나 덧씌워 장식하는 기법이다. 그 양상은 영락연간의 景德鎮 珠山 출토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백자나 청화백자 위에 장식되었다.

묘금 기법으로 장식된 자기가 조선에 유입된 시기는 1450년이지만, 현재까지 중국에서 1450년 이전에 해당하는 正統年間(1436-1449)의 출토품은 발굴된 예가 없다. 그러나 『명영종실록』에는 “정통 6년(1441) 5월 기해 광록시는 금용·금봉백자관을... 강서 요주부에서 만들라.”¹⁷⁾고 되어있다. 비록 현재까지 정통연간의 묘금기법 자기가 출토된 바는 없으나, 이러한 문헌기록을 통해 묘금 기법의 자기가 제작되고 조선에까지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유적 출토품

경기도 광주 일대 가마터,¹⁸⁾ 경기도 산본 백자 가마터 등의 생산지 유적과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 용인 임진산성, 충북 청주 용암 유적, 경남 구미 진평동, 서울 원각사지, 경기도 파주 당동 분묘, 서울 중구 을지로,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 광화문 육조거리, 서울 신청사 건립부지내 유적, 서울 종로구 청진동 유적 등 소비자 유적에서 명대 자기가 출토되었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양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적 출토 명대 자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마터 출토 명대 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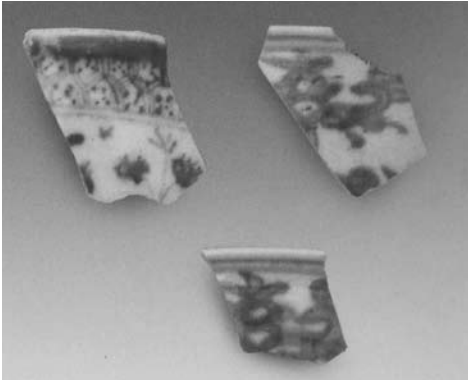
도마리 1호에서는 여러 점의 청화백자편이 출토되었다.¹⁹⁾ 이 중 〈백자청화초화문편〉(도 1-左)은 외면에 귀갑문과 초화문이 장식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문양을 弘治年間(1488-1505) 민요품인 〈백자청화송죽매문완〉(도 2)에서 볼 수 있다. 이 완의 외면에는 소나무, 대나무, 괴석, 매화

¹⁶⁾ 許之衡, 『飲流齋說瓷』說花繪, “平彫, 亦名暗花”; 陸錫興 主編, 앞의 책(2001), p. 2에서 재인용.

¹⁷⁾ 『明英宗實錄』卷161, “正統六年五月在光祿寺奏.....其金龍, 金鳳白瓷罐等件, 今江西饒州府造.”

¹⁸⁾ 도마리 1호, 우산리 9호, 번천리 5호, 번천리 9호 가마터 출토 자기 편은 발굴 출토품이고, 우산리 15호, 관음리 22호, 대쌍령리 1호 출토 자기 편은 지표수습품이다.

¹⁹⁾ 접시와 저부 편, 여러 점의 구연편이 출토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이들 편들을 16세기 초 明代 正德年間(1506-1521)의 것으로 추정하였다(『廣州郡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道馬里1號窯址-』[國立中央博物館, 1995], p. 108).



도 1 <백자청화초화문편, 보상당초문편>, 중국, 15세기 후반-16세기 초반, 광주 도마리 1호 출토.

등이 시문되었는데, 구연 가까이에 두 줄로 귀갑문을 장식한 것이나 매화의 표현, 매화 사이의 작은 초승달 등에서 유사함을 찾을 수 있다. <백자청화편>(도 1-右, 下)의 외면에는 상·하의 둥근 원에 식물의 줄기와 잎이 연결된 형태의 문양이 거칠게 시문되었다. 이러한 문양은 成化年間(1465-1487) 민요품인 <백자청화보상화문완>(도 3)을 통해 그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보상화와 당초문으로 연결된 이러한 문양은 성화연간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관요와 민요 모두에서 제작되었는데,²⁰ <백자청화편>의 경우 전체적인 분위기나 문양의 표현을 볼 때, 성화연간 민요품으로 생각된다.²¹

우산리 9호에서는 <백자청화초화문편> 한 점이 출토되었다.²² 내저면에는 세 줄의 횡선과 초화문이 있고, 내측면에는 식물 덩굴 일부가 시문되어 있으며, 외면에는 화당초문이 시문되었



도 2 <백자청화송죽매문완>, 중국, 명 홍치연간 (1488-1505), 높이 6.8cm, 구경 16.5cm, 저경 6.8cm, (鐵源主編, 『明清民窯瓷器鑑定-成化·弘治·正德 卷』, 朝華出版社, 2005, 도37)



도 3 <백자청화보상화문완>, 중국, 명 성화연간 (1465-1487), 높이 6.7cm, 구경 13.2cm, 저경 5.7cm, (鐵源主編, 『明清民窯瓷器鑑定-成化·弘治·正德 卷』, 朝華出版社, 2005, 도115)

²⁰ 鐵源 主編, 『明清民窯瓷器鑑定-成化·弘治·正德 卷』(朝華出版社, 2005), p. 33.

²¹ 도마리 1호 출토 명대자기는 성화·홍치연간의 양식을 보여, 이를 감안하면 도마리 출토 乙丑 8월 사각봉의연대를 1505년으로 볼 수 있으며, 도마리 1호는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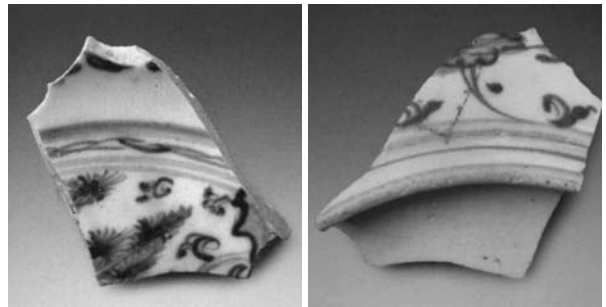
²²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展-附 廣州 牛山里 9號窯址 發掘調査報告-』(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93), p.34.

다. 이러한 문양은 서울 장교동 출토품과 유사한데,²³ 장교동 출토품이 正德年間(1506-1521)의 제작품으로 여겨지므로, 우산리 9호 출토 편 역시 동일한 시기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²⁴ 그러나 중국의 경우 이와 유사한 문양이 성화연간의 관요자기에 보이고, 더 이른 시기인 영락연간의 민요자기에서도 확인됨으로, 이 출토 편이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

번천리 5호에서는 2점의 명대 자기가 출토되었다. <백자청화구연편>은 팔보문과 이를 바치고 있는 연화당초문의 문양이 시문되었는데, 이 문양은 명초부터 보이기 시작하지만, 양식상 홍치·정덕·가정연간의 민요품과 유사하다.²⁵ <백자청화저부편>의 외면은 식별하기 어렵고 내면에는 송죽매문이 시문되었다. 이와 같은 양식의 송죽매문은 天順年間(1457-1464)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홍치·정덕·가정연간의 민요품에 지속적으로 시문되었다. 번천리 5호 요지의 운영시기가 16세기 중반 경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²⁶ 출토 편들도 정덕(1506-1521)·가정(1522-1566)연간 민요품일 것으로 생각된다.

번천리 9호에서는 구연과 접시, 저부 편 등이 출토되었다.²⁷ 번천리 9호 출토 청화백자 편은 정덕·가정연간의 민요품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²⁸

지표수습된 우산리 15호의 <백자청화저부편>(도 4)은 홍치연간(1488-1505)의 민요품(도 5)과 내면에 각각 두 줄의 청화선을 돌리고 그 사이를 식물 덩굴로 장식한 것, 솔잎, 나무에서 뺀 가지, 외면의 화당초문 등의 문양이 유사하다. 이러한 문양구성에 사슴이나 학이 함께 배치된 송록문, 송학문 자기가 홍치연간 민요에서 많이 제작되었다.²⁹ 관음리 22호의 구



도 4 <백자청화저부편>, 우산리 15호 지표수습.

23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위의 책, p. 34.

2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中國陶磁』(국립중앙박물관, 2007), pp. 310-311.

25 鐵源 主編, 『明清瓷器紋飾鑑定-圖案文飾卷』(華齡出版社, 2002), pp. 6-29.

26 퇴적층에서 백자음각 '嘉靖33년'(1554)명 묘지석이 출토되어, 그 운영시기를 16세기 중엽으로 추정할 수 있다(『廣州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樊川里 5號·仙東里 2,3號』[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韓國道路公社, 1986], p. 121).

27 『廣州 樊川里 9號 朝鮮白磁窯址』(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경기도 광주시, 2007), p. 274, 290.

28 尹傲靖, 앞의 논문(2006) p. 347.

29 鐵源 主編, 『明清瓷器紋飾鑑定-花鳥文飾卷』(華齡出版社, 2001), p. 24; 同著, 『明清瓷器紋飾鑑定-動物文飾卷』(華齡出版社, 2001), p. 68.



도 5 <백자청화송록문반>, 중국, 명 홍치연간(1488-1505), 높이 3.9cm, 구경 21.5cm, 저경 13.3cm, 北京毛家灣 출토.

연편은 영지당초문을 시문하고 있다. 영지당초문은 명초부터 계속해서 사용된 문양이며, 이 구연편의 경우는 필치가 간략하고 거칠어서 민요품으로 생각된다.

경기도 군포 산본 백자 가마터에서는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구연과 동체 편이 출토되었다.³⁰ 구연편은 구연 밑에 두 줄의 청화선을 돌리고, 그 아래에 당초문을 시문하였으며, 동체 편에도 당초문이 그려져 있다. 두 편 모두 기벽이 매우 얇고 정제되어 있으며, 당초문은 구름법을 사용하여 간략하고 성글게 시문되었는데, 그 형태가 충북 청주 용암 유적 출토 <백자청화당초팔보문 대접>, 서울 중구 장교동 출토 <백자청화연화당초팔보문완>, 변천리 9호 출토 청화 편들의³¹ 당초문과 유사하다. 이들은 모두 정덕(1506-1521)·가정(1522-1566)연간의 민요품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산본 출토 편들 역시 16세기 전반경의 명대 민요자기로 생각된다.³²

2) 소비지 출토 명대 자기

서울 종로구 청진동 유적에서는 <백자청화운룡문접시편>이 출토되었다(도 6). 여러 편으로 출토되어 전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지만, 비늘을 열은 청화로 그리고 그 위에 진한 청화로 찍어 농담을 주며 표현한 점이나 배부분을 마치 원을 잇듯이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 등이 선덕(1426-1435)·정통(1436-1449)연간의 운룡



도 6 <백자청화운룡문접시편>, 중국, 서울 종로구 청진동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³⁰ 이외에도 청화백자 편이 한 점 더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내·외면 군데군데 붙어 있는 잡물을 소성시의 것으로 보아 국내산으로 추정하였다(『山本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報告書-陶窯地遺蹟』, [湖巖美術館, 1990], p.237, 320). 그러나 구연부에 청화장식을 하고 동체에도 문양을 배치한 점은 아직까지 국내산 청화백자에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아 중국 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청화가 많이 퍼지고 문양 일부만 남아 이것만 가지고는 양식분석이나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제외하겠다.

³¹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경기도 광주시, 앞의 책(2007), p. 274, 284.

³² 한편, 경기도 광주 관요 및 산본 가마터에서 출토된 명대 민요자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도 7 <백자청화운룡문호>, 중국, 명 선덕연간(1426-1435), 높이 52cm, 日本 出光美術館.



도 8 <백자청화보상당초문완>, 중국, 서울 종로구 청진동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도 9 <백자청화전지보상화문완>, 중국, 명 성화연간(1465-1487), 높이 6.7cm, 구경 12.8cm, 저경 5.4cm, 北京 毛家灣 출토.



도 10 <백자청화초화문병편>, 중국,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 출토.



문과 유사하다(도 7). 따라서 이 접시 편은 15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다. 청진동 출토 <백자청화보상당초문완>(도 8)은 성화연간(1465-1487) 민요자기(도 9)와 거의 흡사하다. 이는 또한 관음리 22호 구연편의 영지문, 도마리 1호 <백자청화편>의 보상화문과 비슷하여, 이러한 문양의 자기가 상당량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암사지 출토 <백자청화초화문병편>(도 10)은 동체가 네 면으로 이루어진 듯 보이며, 속에 접합흔적이 있고, 경부에는 병의 손잡이 일부가 남아 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병을 戟耳方瓶 혹은

없다. 다만 변천리 9호에서 출토된 중국산 백자 접시와 동일한 기형의 관요백자를 제작한 것이 확인된 점(전승창, 앞의 논문[2009], p. 55), 우산리 9호 출토 <백자청화편>에 시문된 변형 운문이 성화 민요자기구연부 장식과 관련성이 보이는 점(본고, p. 144), 변천리 9호 출토 <화형잔편>, <어문저부편>의 내지면에 청화로 원권을 두른 중국풍의 시문 방식이 보이는 점(윤효정, 앞의 논문[2006], p. 343) 등을 볼 때, 명대 민요자기가 가마에서 모본보다는 참고품 정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산본 가마의 경우 관요는 아니지만, 이미 15세기 후반부터 명대 민요자기가 들어오고 지방의 유적에서도 출토되는 점을 생각하면, 산본 가마에도 민요 자기가 충분히 유입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단순유입인지 모본인지 참고품인지에 대해서는 역시 알 수 없다. 아직까지 가마터 출토 명대 자기와 유사한 장식을 한 국내산 청화백자는 확인된 바 없으므로,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11 <백자청화절지초화문극이방병>, 중국, 명 경태연간(1450-1456), 높이 15.1cm, 구경 3.2cm, 景德鎮陶瓷館.

은 月芽耳瓶이라고 부르는데, 명대 초기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 景泰年間(1450-1456) 민요에서 점차 많아져서 기본적으로 경태연간 혹은 그 이후로 시기를 규정한다.³³ 경태연간의 민요품인 <백자청화절지초화문극이방병>(도 11)을 통해 회암사지 출토 병 편의 대략의 기형과 문양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경기도 파주 당동 분묘에서는 <백자청화동자문발>이 출토되었다. 명대의 경우 성화연간에 영희도를 시문한 자기가 제작되었는데, 특히 민요에서 많이 제작되었다.³⁴ 관요자기는 인물의 묘사가 세심한데 비해, 민요 자기는 간략화되고 생략적이지만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어, 경기도 파주 당동 출토 발과 유사성을 지닌다. 서울 신청사 건립부지내 유적에서 출토된 <백자청화범문발편>

은 정덕연간(1506-1521)의 발과 유사한데, 정덕연간에는 범문이 시문된 자기가 유행하였다.³⁵ 서울 광화문 육조거리에서는 <백자청화화당초문편>이 출토되었는데, 저부에 '대명만력년제'의 관지가 있다. 이를 통해 16세기 후반에도 계속 명대 자기가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 조선 백자와 명대 자기의 양식비교

1. 기형

병은 명대의 경우 원대에 비해 목이 짧고 굵어지며 동체가 풍만하게 부풀어 오르는 형태로 변한다. 그러다가 가정연간(1522-1566)에 이르면, 목이 길고 동체 상부의 양감이 줄어들며 하부가 풍만해지는 형태로 변화된다.³⁶ 이러한 경향은 관요와 민요에서 모두 보이며, 조선 백자에도 그 영

³³ 鐵源 主編, 『明清民窯瓷器鑑定-正統·景泰·天順 卷』(朝華出版社, 2005), p. 40.

³⁴ 鐵源 主編, 『明清民窯瓷器鑑定-成化·弘治·正德 卷』(朝華出版社, 2005), pp. 20-22.

³⁵ 鐵源 主編, 위의 책, p. 143.

³⁶ 耿寶昌, 『明清瓷器鑑定』(紫金城出版社·兩木出版社, 1993), p. 124.

향이 나타난다. 15세기 조선 백자 병에는 구연이 크게 외반하고 목이 긴 점에서 원대 자기의 요소가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영락(1403-1424)·선덕(1426-1435)연간의 병과 그 형태와 비례가 유사한 것들이 많다. 16세기에는 변천리 5호 출토 〈백자병〉에서 보듯이 동체 상부의 양감이 줄어들고 하부가 풍만해지는 가정연간의 형태로 변화된다. 그런데 조선의 경우, 이러한 명대 자기의 전체적인 기형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명대 자기와는 달리 구연이 밖으로 둥글게 말리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16세기에 들어서면 더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구연외반식 발은 원대의 경우 굽이 좁고, 밖으로 약간 벌어지며, 저경과 구경의 비가 약 1:3 정도를 이룬다. 그런데 명대에 들어서면 원대에 비해 굽이 넓고 직립에 가까워지며, 저경과 구경의 비가 약 1:2 정도를 이루게 된다. 이는 관요와 민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며, 조선 백자에서도 보인다. 조선 백자 발은 원대 영향을 받은 고려 상감청자의 전통이 지속되면서도³⁷ 점차 새로운 명대 자기 요소를 수용하여 전체적으로 당당하고 안정감을 주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호는 『世宗實錄』 「五禮儀」 嘉禮序例尊爵條의 ‘白磁青花酒海’와 전체적인 기형이 비슷하다. 백자청화주해는 선덕연간에 제작된 백자청화운룡문호로 추정됨으로,³⁸ 조선 백자의 호는 선덕연간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연이 약간 내경한 점이나, 저부 끝에서 살짝 외반한 점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특징은 선덕연간의 민요 자기에서 보여, 호는 선덕연간의 관요 양식과 민요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도 12, 도 13). 그러나 조선의 경우는 분명한 S자 곡선이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날씬하여 길어 보이는 특징이 있다.



도 12 〈백자청화보상당초문호〉, 높이 28,4cm, 구경10,1cm, 저경11,8cm, 복경23,3cm, 삼성미술관 Leeum.



도 13 〈백자청화인물문관〉, 중국, 명 선덕연간(1426-1435), 높이 39cm, (鐵源 主編, 『明清民窯瓷器鑑定-洪武·永樂·宣德 卷』 [朝華出版社, 2005], 도7)

³⁷ 金允貞, 「高麗後期에서 朝鮮初期 象嵌青磁에 나타난 元代 磁器의 影響」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3), pp. 36-39.

³⁸ 김영원, 앞의 책(1995), p. 142.

표 2 조선 백자와 명대 자기의 뚜껑 비교

	朝鮮		明	
I 형식				
	도마리 출토 (15세기 후반-16세기 초반)	도마리 출토 (15세기 후반-16세기 초반)	〈백자온기〉 영락(1403-1424) 관요	〈백자개관〉 선덕(1426-1435) 민요
II 형식				
	〈백자호〉, 호림박물관 15세기	〈백자청화매조죽문호〉, 국립중앙박물관 16세기	〈백자청화전지연문개관〉 선덕(1426-1435) 관요	〈백자청화전지연문개관〉 선덕(1426-1435) 민요

뚜껑은 그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표 2). I형식은 상면이 두 개 또는 세 개의 단으로 나뉘어져 있고 보주형의 꼭지가 달려있는 형태로, 영락연간 관요품인 〈백자온기〉, 선덕연간 민요품인 〈백자개관〉의 뚜껑과 유사성이 보인다. 그런데 조선 백자의 경우는 명대 자기처럼 단을 양감 있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완만한 상면에 음각선을 넣어 표현하기도 하였다. I형식 뚜껑은 우산리 9호, 도마리 1호에서도 출토되었다. II형식은 보주형의 꼭지가 있고, 측면선이 완만하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내려와 평평한 저부를 이루며 끝나는 형태이다. 이는 선덕연간의 관요와 민요 자기의 뚜껑과 유사하며, 『세종실록』 「오례의」 가례서례존작조의 ‘백자청화주해’의 뚜껑도 이와 같은 형식이다. 그런데 조선의 경우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170호 〈백자청화매조죽문호〉의 뚜껑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끝이 둥글게 말려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II형식의 뚜껑은 도마리 1호, 변천리 9호에서도 출토되었다.

이 외에도 1552년 전후로 운영되었던 변천리 9호에서 명대 자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접시 편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크기, 비례, 구연의 가장자리 및 기벽의 곡선, 평평한 안바닥 등이 함께 출토된 명대 자기 〈백자청화화당초문접시편〉과 유사하다.³⁹

³⁹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경기도 광주시, 앞의 책(2007), p. 17; 전승창, 앞의 논문(2009), pp. 52-53.

2.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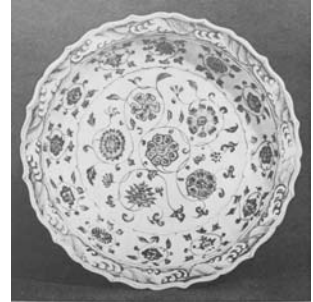
화당초문은 보상화, 연화, 국화 등의 꽃들과 당초 잎이 서로 결합된 문양이다. 형태에 따라 I형식, II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I형식은 주로 전접시에 시문되며, 중앙에 꽃 한 송이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섯 또는 여섯 송이의 꽃이 당초로 연결된 형태이다. 이는 명초에 제작된 자기와 여섯 송이의 꽃, 당초줄기가 꽃을 둘러싸고 있는 방식 등 문양 구성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그런데 일본 出羽桜美術館 소장의 <백자청화화당초문전접시>는 I형식의 기본구성과 다른 구성을 하고 있다(도 14). 내저면의 중앙에 두 줄의 원권과 연판문으로 공간을 구획하여 그 안에 절지문을 배치하고, 그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꽃 여섯 송이가 당초줄기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선덕연간의 <백자청화화과문능화구반>(도 15)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데이비드 소장 <백자청화화당초문화형반>(도 16)과는 도안화된 다양한 꽃들이 당초로 연결되어 있는 점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 전접시는 두 점의 명대 자기의 문양구성을 동시에 채용, 재구성하였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II형식은 호, 병, 양이잔 등에 시문되며, II-①과 II-②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II-①형식은 꽃이 일단으로 배치되고, 당초 덩굴이 누운 S자의 형태로 꽃을 감싸며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선덕연간의 민요기와 유사성을 보인다(도 17, 도 18)⁴⁰. II-②형식은 꽃이 위·아래 이단으



도 14 <백자청화화당초문전접시>, 높이 2,1cm, 구경 20,0cm, 저경 13,9cm, 日本 出羽桜美術館.



도 15 <백자청화화과문능화구반>, 중국, 명 선덕연간(1426-1435), 높이 2,1cm, 구경 19,7cm, 저경 12,4cm, 北京故宮博物院.



도 16 <백자청화화당초문화형반>, 중국, 15세기 초, 구경 34,4cm, 데이비드 재단 컬렉션.

⁴⁰ 조선시대 상감백자에는 원대 자기의 영향으로 보이는 당초문이 시문된 예가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백자상감당초문대접>은 일본 出光美術館 소장 원대 <백자청화연당초문대접>과 그리고 삼성미술관 소장의 <백자상감연당초문병>은 東京國立博物館 소장 원대 <백자청화연당초문발>과 관련성이 보인다(권소현, 『조선시대 상감백자의 편년연구』, 『美術史學研究』 240 [韓國美術史學會, 2003], pp. 93-94). <백자상감보상당초문병>(도 17)은 정확히 15세기



도 17 <백자상감보상당초문병>, 15세기, 높이 32.1cm, 구경 7cm, 저경 10.2cm, 선문대학교박물관.



도 18 <백자청화화당초화훼문군지>, 중국, 명 선덕연간(1426-1435), (鐵源主編, 『明清民窯瓷器鑑定-洪武·永樂·宣德卷』, 朝華出版社, 2005, 도10)



도 19 <백자청화전지연문관>, 중국, 명 선덕연간(1426-1435), 높이 35.3cm, 구경 24.8cm, 저경 24.5cm, 北京首都博物館.

로 변갈아가며 배치되고, 당초줄기가 보상화를 하나씩 감싸고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선덕연간의 자기와 유사하다(도 19).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보물 785호 <백자청화운룡문병>의 운룡문은 수염과 갈퀴의 방향이나 발가락과 비늘의 표현, 용트림한 자세 등 전체적인 모습에서 선덕연간의 운룡문과 유사하여 영향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도 7)⁴¹.

문자문은 명대의 선덕·정통·가정연간의 민요자기와 그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표 3). 삼성미술관 Leeum 소장의 <백자청화국당초문양이잔>과 <백자청화매죽문양이잔>의 내저면

전후반 어느 시기로 편년할 수는 없으나, 화당초문 형식이 선덕연간 민요자기와 유사하여 원대 양식과 관련되는 위의 예보다는 뒷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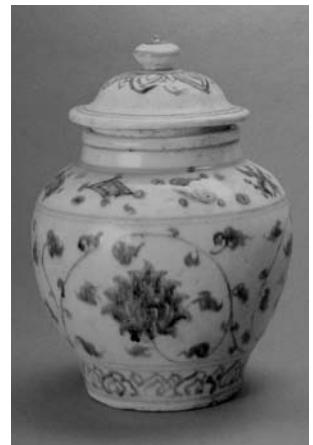
⁴¹ 김영원, 앞의 책(2003), p. 221.

표 3 조선 백자와 명대 자기의 문자문 비교

		15세기		16세기
조선				
		〈백자청화국당초문양이잔〉 내저면, 삼성미술관 Leeum	〈백자청화매죽문양이잔〉 내저면, 삼성미술관 Leeum	〈백자청화국연문양이잔〉 내저면, 해강도자미술관
명				
				
		永樂(1403-1424)	宣德(1426-1435)	正統(1436-1449)
				嘉靖(1522-1566)

에는 ‘복’자가 단정한 예서체로 시문되어 있는데, 이는 선덕·정통연간의 문자문과 유사하다. 도마리 1호에서도 문자문이 시문된 〈백자저부편〉이 출토되었다. 해강도자미술관 소장의 〈백자청화국연문양이잔〉에는 내저면에 ‘수’자가 해서체로 시문되어 있는데, 이는 가정연간의 문자문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사하다. 그런데 조선의 경우는 문자문을 채용하면서도 청화로 원권을 그리지 않고, 내저원각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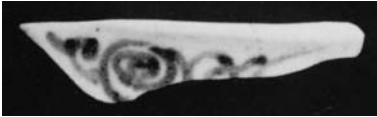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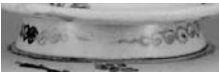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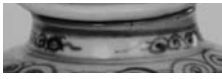


칠보문에서도 명대 자기와와의 관련성이 보인다. 일본의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소장 〈백자청화보상당초문전접시〉, 根津美術館 소장 〈백자청화보상당초문전접시〉, 出羽桜美術館 소장의 〈백자청화화당초문전접시〉의 뒤에는 공통적으로 칠보문이 시문되어 있다. 15세기 후반-16세기 초에 운영된 도마리에서도 뒷면에 칠보문이 장식된 전접시가 출토되었다. 칠보문은 중국에서는 잡보문이라 하여 원대부터 도자기의 보조문양으로 사용되었다.⁴² 그러나 양식상 주로 선덕·정통연간의 민요자기와 관련성이 보인다(도 20).



도 20 〈백자청화전지연문개작〉, 중국, 명 정통 2년(1437), 江西省新建縣黃源鄉寧王世子朱盤斌墓 출토, 江西省博物館.

⁴² 鐵源 主編, 『明清瓷器紋飾鑑定—圖案文飾卷』(華齡出版社, 2002), p. 59.

표 4 조선 백자와 명대 자기의 변형운문 비교

		15세기	16세기	
조선				
		우산리 9호(1482) 출토	〈백자청화매조죽문호〉 구연부	〈백자청화매조죽문호〉 구연부(국보 170호)
명				
		〈백자청화절지화문개호〉 구연부, 성화(1465-1487)	〈백자청화전지연문완〉 구연부, 성화(1465-1487)	〈백자청화삼죽정식로〉 구연부, 정덕(1506-1521)

변형운문은 운문이 소용돌이 형태를 이루며 이어지다가 양쪽에 꼬리가 달린 형태를 띠며 끝나는 문양으로, 보조문양으로 사용되었다(표 4). 우산리 9호 출토 〈백자청화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백자청화매조죽문호〉와 국보 170호 〈백자청화매조죽문호〉의 구연부 장식이 그 예이다. 중국의 경우 이러한 변형운문은 정통·성화·정덕연간의 민요자기에서 볼 수 있다. 정통과 정덕연간의 경우 꼬리가 다소 두껍고 끝이 뭉툭한 형태를 하고 있고, 성화연간의 경우 간략하고 빠른 필치로 꼬리를 표현하고 있어 조선과 관련성이 보인다.

IV. 15-16세기 조선 관요 백자의 명대 자기 수용양상

조선 관요 백자의 명대 자기의 수용 양상은 앞서 살펴본 문헌기록과 유적 출토 명대 자기의 고찰, 조선 백자와 명대 자기와의 양식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1기(1392-1450년경), 2기(1450-1500년경), 3기(1500-1592년경)의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1기(1392-1450년경)

명대 자기는 고려말 조선초에 이미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나 건국 초기 조·명관계가 원활하지 않았기에, 일부만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4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공식적인 유입기록이 보이기 시작하며, 특히 세종대에는 선덕제에 의해 직접 자기가 하사되기도 하였다. 자기 종류로는 백자, 청화백자, 청자, 영락·선덕연간의 백자로 추정되는 분색사기가 유입되었다. 잔, 발, 완, 호, 뚜껑, 주자, 접시, 나배 등의 기형과 운룡문, 사자문, 화당초문, 문자문 등의 문양이 시문된 자기가 유입되었다. 장식기법으로는 암화기법과 모금기법이 사용된 자기가 유입되었다. 유적 출토품으로는 종로구 청진동 출토 〈백자청화운룡문접시편〉이 있다.

명초에는 관요 양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였기에, 이들 자기는 경덕진의 민요 자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세종 12년(1430)에 유입된 ‘청화사자백자, 청화운룡백자주해’의 사자문과 운룡문은 선덕연간 관요에서는 자주 보이지만, 민요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문양이다. 그리고 선덕연간의 백자청화운룡문호로 추정되는 『세종실록』 「오례의」 가례서례존작조의 ‘백자청화주해’는 조선 백자의 호와 II형식 뚜껑, 운룡문에 영향을 주었다. 화당초문 I형식과 II-②형식 역시 선덕연간의 관요 양식과 영향관계가 있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상을 볼 때, 이 시기 유입된 명대 자기 중에는 관요 양식을 한 상당한 수준의 민요 자기도 있었을 것으로 생

⁴³ 관요 양식의 민요 자기가 유입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영락제·선덕제와 그들의 조선인 후궁들과의 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태종 17년(1417) 한화의 여동생 한씨가 영락제의 후궁이 되고, 세종 10년(1428)에는 한화의 막내동생 한씨가 선덕제의 후궁이 된다. 영락제와 선덕제는 그들을 총애하였고, 그들의 오빠 한화를 광록소경으로 삼고, 자주 명 조정에 불러들이며 황친으로서 대하였다. 조선 조정에서도 사신접대 등 명조정과 관련된 일에는 거의 한화를 내세우곤 했다(『太宗實錄』卷34 太宗 17年 12月 20日 辛丑條; 『太宗實錄』卷35 太宗 18年 1月 8日 己未條; 『世宗實錄』卷1 世宗 即位年 9月 13日 庚申條; 『世宗實錄』卷3 世宗 1年 1月 19日 甲子條; 『世宗實錄』卷8 世宗 2年 5月 6日 癸酉條; 『世宗實錄』卷25 世宗 6年 7月 4日 丁丑條; 『世宗實錄』卷36 世宗 9年 5月 1日 戊子條; 『世宗實錄』卷69 世宗 17年 7月 20日 己丑條). 곧 특별히 총애하는 후궁의 고국이기에 관요양식의 민요 자기를 하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본다.

각된다.⁴³

1기에는 조선 백자의 병, 발에서 명대 자기의 영향이 보이기 시작한다. 병은 구연의 외반정도가 덜하고, 목이 짧아지며, 동체의 양감이 더해져 가는 점에서, 구연외반식 발은 굽이 넓어져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점에서 명대 자기와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1기(1392년경-1450년경)는 명대 자기의 공식적인 유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선 백자의 발, 병의 기형에서 원대 자기의 영향을 받은 고려의 전통이 지속되면서도, 새로운 명대 자기의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2. 2기(1450-1500년경)

명대 자기 유입기록은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1470년대가 되면 다시 등장한다. 그 중 유구 왕국의 외교활동 기록을 모은 사서인 『역대보안 제1집』제41권에는 성종 1년(1470) “백지청화반 20개, 백지청화완 30개, 청반 20개, 대청완 50개, 소청완 100개 등의 자기를 조선왕실에 바쳤다.”⁴⁴는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유구와 일본을 통해서 거의 청자나 백자가 유입되었는데, 이 기록을 통해 2기에는 유구를 통해서도 명대 청화백자가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성화연간의 경덕진 민요자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1기에 비하면 공식적인 유입기록이 현저히 적어지지만, 계속해서 왕실에 명대 자기가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시기에는 사무역의 확대로 사치풍조가 생기고, 중국 청화백자 같은 중국 물품들이 불법으로 유입되는 것을 통탄하는 기록들이 등장한다.⁴⁵ 명대 자기가 공식적 유입보다는 사무역을 통해 활발히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기에 유입된 명대 자기는 완이나 발이 대부분이나 극이방병과 같은 기종도 유입되었다. 문양은 화당초문, 보상화당초문, 모란문, 영희문 등이 시문된 자기가 유입되었다.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 출토 〈백지청화초화문병편〉이 경태연간(1450-1456)이후의 민요제작품으로 약간 시기가 올라갈 뿐, 대부분 성화·홍치연간의 민요자기로 추정된다.

2기의 조선 백자는 명대 자기의 양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다. 기형에서는 병과 발

⁴⁴ 『歷代寶案 第1集』第 41卷, “...白地青花盤二十個, 白地青花碗二十個, 靑盤二十個, 大靑碗五十個, 小靑碗一百個, …白碗一雙…”

⁴⁵ 『成宗實錄』卷55 成宗 6年 5月 12日 庚申條; 『成宗實錄』卷77 成宗 8年 閏2月 10日 戊申條; 『成宗實錄』卷77 成宗 8年 閏2月 13日 辛亥條; 『成宗實錄』卷77 成宗 8年 閏2月 14日 壬子條.

이 명대 자기 양식을 본격적으로 반영하고, 호와 뚜껑에서는 선덕연간 양식의 수용이 보인다. 문양에서는 화당초문, 운룡문, 문자문, 칠보문에서 선덕·정통연간 자기의 영향이 나타난다. 또한 성화연간 민요 자기의 영향으로 생각되는 변형운문이 우산리 9호 출토 〈백자청화당초문편〉에서 보인다.⁴⁶ 그런데 조선 백자에 보이는 명대 자기 양식은 변형운문을 제외하곤 모두 1기에 유입된 영락·선덕·정통연간의 양식이다. 곧 조선백자는 동시기의 명대 자기 양식보다 1기에 유입된 명대 자기 양식을 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1450년 이후부터 1470년 이전까지 명대 자기의 공식적인 유입기록이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당시 양국의 역사적 배경과 제자 상황을 살펴보면, 명대의 경우 정통 원년(1436)과 정통3년(1438)에 사사료이 자기를 제조하거나 각 처로 판매하지 말라는 금령이 내려졌다.⁴⁷ 그러나 반복되는 금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외국과의 교역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정통 12년(1447) 9월 외국과 자기를 교역하지 말라는 금령이 내려지는데,⁴⁸ 이 금령은 조선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꽤 강력하였던 것 같다. 세종 30년(1448) 세종은 예조에 중국에서 청화자기를 금하여 외국사신에게 팔거나 주면 죄가 죽음에 이른다고 하니 사행에서 자기무역을 일체 금단하라고 하교하였다.⁴⁹ 더구나 1449년에는 명이 오이라트를 공격하다가 정통제가 오히려 포로로 잡히는 이른바 토목의 변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명 조정을 충격에 빠뜨렸고, 경태제가 즉위하지만 7년 만에 정통제가 돌아와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천순제로 등극한다.⁵⁰ 이처럼 정통연간(1436-1449) 후반기부터 경태(1450-1456)·천순(1457-1464) 연間は 정치적 혼란기이며, 경제적으로도 피폐하여 경덕진의 요업을 일시 휴정하기도 하고, 소량 소조하거나 민요에 위탁하여 자기를 생산하였다.⁵¹ 따라서 1450년 이후부터 1470년 이전에는 1기와 같은 공식적인 유입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⁵² 반면 조선의 경우 1440년대에는 양질의 백자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⁵³ 그리고 〈백자청화 ‘경태 7년(1456)명 묘지

46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앞의 책(1993), p. 33.

47 『明英宗實錄』卷1:『明史』清, 卷82 燒造.

48 『明書』英宗睿皇帝本紀 卷8, “禁瓷器與外彝交易”; 『明英宗實錄』卷161, 正統12年 12月 甲戌.

49 『世宗實錄』卷119 世宗 30年 3月 3日 戊子條, “傳旨禮曹, 聞中朝禁青花磁器, 賣與外國使臣, 罪至於死. 今後赴京及遼東之行, 貿易磁器, 一皆禁斷.”

50 金恩慶, 「15世紀中期中國景德鎮青花瓷研究—兼談15世紀朝鮮官窯相關議題」(國立臺北藝術大學 美術史研究所 碩士學位論文, 2010) pp. 14-20, 참조.

51 佐久間重男, 「明代の陶磁と歴史的背景」, 『世界陶磁全集』14 (小學館 1993), p. 141.

52 다만 회암사지에서 경태연간 혹은 그 이후로 추정되는 〈백자청화초화문편〉이 출토되어 사무역을 통해 소량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53 강경숙, 「15세기 경기도 광주 백자의 성립과 발전」, 『美術史學研究』237 (韓國美術史學會, 2003), p. 88.

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1450년대에는 청화백자가 제작되었다. 1460년대 후반에는 경기도 광주에 관요가 설립되어, 제도적으로도 본격적인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동시기 공식적인 명대 자기의 유입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1기에 다량 유입되었던 명대 자기의 양식을 수용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조선 백자의 명대 자기 양식의 수용태도에도 그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기 후반기가 되면, 유구와 일본 그리고 명과의 사무역을 통해 동시기의 명대 민요 자기가 유입되는데, 그 영향은 보조문양인 변형운문에서만 나타난다. 이는 이 시기 조선 백자가 명대 자기의 양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무조건적이 아닌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⁵⁴ 당시 명대 자기의 요소가 보이는 백자와는 별도로 양이잔, 전접시, 편병, 연적, 구연이 외반하여 말린 입호, 원호 등의 기형과 시문, 회화적인 송죽매 계열 문양 등이 시문된 조선 백자가 다수 제작되고 있었음은 이를 또한 반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곧 2기는 백자와 청화백자의 생산, 관요의 설립 등의 조선 백자의 발전과정 속에서, 영락·선덕·정통·성화연간의 명대 자기의 양식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 3기(1500-1592년경)

3기에도 사무역을 통해 명대 자기가 유입되었다.⁵⁵ 중종대 이후에는 명대 자기 유입 관련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중국 물품의 사용과 사무역 금지, 사치풍조를 통탄하는 기록, 극도에 달한 사무역으로 인해 중국에서 무역하는 조선 사신 일행을 비웃고 獐子와 같이 대하는 일도 비밀

⁵⁴ 한편, 조선백자가 어떻게 중국식 조형을 반영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관요 청화백자의 그림이 사용원 관리를 따라 광주에 내려갔던 화원에 의해 그려졌다 점(『新增東國輿地勝覽』, 京畿道 廣州牧條, “每歲 司饗院官率畫員監造御用之器”), 『세종실록』 『오례의』, 가례서례준작조의 ‘백자청화주해’의 실례가 존재한다는 점을근거로, 화원이 기존에 중국 자기를 그려두었던 화본을 계속적으로 참고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전승창, 앞의 논문[2009], p. 55). 1기에 유입되었던 명대 자기 양식은 이러한 방법으로 조선백자에 반영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2기와 3기에 유입된 명대 자기의 경우, 조선백자에 그 영향이 보이는 하지만 어떠한 경로로 반영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가마터 출토 명대 자기를 볼 때, 가마터에서 직접 참고품으로 사용되면서 명대 양식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향후 새로운 자료의 발굴 및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⁵⁵ 『中宗實錄』卷12 中宗 5年 9月 26日 己卯條. “...本國所產, 可以支用, 何必唐物乎 方今競尙奢侈, 衣服皆用紗羅綾段, 器具盡用畫器, 宮室極麗, 雖士庶之家, 亦皆飾以華襪...”

⁵⁶ 『中宗實錄』卷26 中宗 11年 11月 8日 乙酉條; 『仁宗實錄』卷1 仁宗 元年 2月 24日 丁巳條; 『明宗實錄』卷10 明宗 5年 2月 27日 壬戌條; 『明宗實錄』卷15 明宗 8年 7月 27日 辛未條.

비재 하었다는 기록들을 볼 때⁵⁶ 충분히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기에 유입된 명대 자기의 양상은 유적 출토품을 통해 알 수 있다. 대부분 잔, 완, 접시이며, 송죽매문, 화문, 화당초문, 연탁팔보문, 범문 등 다양한 문양이 시문되었다. 양식상 정덕·가정연간의 민요 자기들로 추정된다. 이외 서울 광화문 육조거리 출토 '대명만력년제' 관지가 있는 〈백자 청화화당초문편〉이나 용인 임진산성 출토 〈長春佳器 명 완저부편〉은⁵⁷ 16세기 후반이나 그 이후에도 명대 자기가 유입되었음을 보여 준다. 유적 출토품은 이 시기 명대 자기 유입 관련 문헌기록은 없지만, 계속해서 명대 자기가 유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3기의 조선 백자에는 2기에 수용된 양식이 지속되며 세부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병의 경우 구연이 등글게 말리는 경향이 강해지고, 호는 동체에 분명한 S자 곡선이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날씬한 형태로 변화한다. I형식 뚜껑은 이미 15세기 후반부터 양감 있게 단을 표현하는 방법 외에 완만한 상면에 음각선을 넣어 제작하였고, II형식 뚜껑은 그 끝이 등글게 말려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문자문의 경우는 내저면에 문자를 시문하되 주변의 원권을 청화가 아닌 내저원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 백자가 명대 자기 요소를 수용, 소화하여 점차 조선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기의 조선 백자는 또한 동시기 명대 자기의 양식을 수용하였다. 변천리 5호 출토 〈백자병〉은 동체 상부의 양감이 줄어들고 하부가 풍만해지는 점에서 가정연간의 병과 유사하다. 변천리 9호 출토 접시편들은 가정연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자청화화당초문접시편〉과 그 형태가 동일하다.⁵⁸ 문양에서는 '수'자가 시문된 문자문에서 가정연간의 문자문과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변천리 9호에서는 내면 저부에 청화로 원권을 두르고 어문을 시문한 〈화형잔편〉이 출토되었다.⁵⁹ 조선의 경우는 문자문의 예에서와 같이 문자문을 수용하면서도, 내저에 원권을 시문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러한 편이 출토되었다는 것은 동시기 명대 자기 양식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곧 3기는 조선 백자가 2기에 수용한 명대 양식을 조선적으로 변화시키고, 이와 함께 16세기에 유입된 명대 자기 양식을 일부 기형과 문양에서 새롭게 받아들이는 시기이다.

57 '長春佳器'의 문자가 적혀 있는 중국자기는 매우 적은 편으로, 가정(1522-1566), 만력(1573-1620), 천계(1621-1627), 승정(1628-1644) 연간에 제작된 청화백자에서만 소수 발견된다. 李正中·朱裕平, 『中國古瓷銘文』(天津人民出版社, 1991), pp. 105-106.; 전승창, 앞의 논문(주 3), p. 45. 재인용.

58 전승창, 앞의 논문(2009), pp. 52-53.

59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경기도 광주시, 앞의 책(2007), p. 273; 尹傲靖, 앞의 논문(2006), p. 343.

V. 맺음말

지금까지 15-16세기 명대 자기의 유입과 조선 백자에 보이는 명대 자기의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먼저, 국내·외 도자관련 문헌기록과 유적 출토품을 분석하여 당시 어떠한 명대 자기가 유입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명대 자기의 종류에는 백자와 청화백자, 청자, 분색사기 등이 있으며, 분색사기는 영락-선덕연간 초의 백자로 추정하였다. 가마터와 소비지의 유적 출토 명대 자기는 서울 종로구 청진동 출토 〈백자청화운룡문접시편〉를 제외하고, 대부분 15세기 후반-16세기에 속하는 민요제작품이었다. 둘째, 조선 백자와 명대 자기의 양식을 비교 분석하여, 조선 백자에 보이는 명대 자기의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셋째, 이를 종합하여 세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마다 조선 백자가 명대 자기 양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변화시켜 가는지 그 수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1기(1392-1450년경)는 명대 자기의 공식적인 유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선 백자의 발, 병의 기형에서 원대 자기의 영향을 받은 고려의 전통이 지속되면서도, 새로운 명대 자기의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2기(1450-1500년경)에는 발, 병을 비롯해서 호, 뚜껑의 기형과 화당초문, 운룡문, 문자문, 칠보문, 변형운문에서 명대 자기의 요소가 보였다. 그런데 2기에 수용된 양식은 변형운문 외에 대부분 1기에 유입된 영락·선덕·정통연간의 양식이었다. 이는 당시 조선의 경우 양질의 백자와 청화백자가 제작되고, 관요가 설립되는 등 제도적으로도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던 시기인 반면, 명의 경우 정치적·경제적 혼란기였던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곧 조선은 본격적으로 백자와 청화백자를 생산하는 시기였지만, 더 이상 명대 자기의 공식적인 유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1기에 다량 유입되었던 명대 자기의 양식을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선 백자의 수용태도에도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2기 후반기가 되면 사무역을 통해 새로운 명대 자기가 상당량 유입되는데, 그 영향은 보조문양인 변형운문에서만 보인다. 곧 조선 백자가 명대 자기의 양식을 무조건적이 아닌 선택하여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명대 자기의 요소가 보이는 백자와는 별도로 양이잔, 전접시, 편병, 연적, 구연이 외반하여 말린 입호, 원호 등의 기형과 시문, 회화적인 송죽매 계열 등의 문양이 시문된 조선 백자가 다수 제작되고 있었음은 이를 또한 반증해 준다. 3기(1500-1592년경)에는 조선 백자가 2기에 수용한 명대 자기 양식을 조선적으로 변화시키며 발전하고 있었으며, 이와 함께 병과 접시, 문자문, 내저면의 청화원권 등 일부 기형과 문양에서 16세기에 유입된 명대 자기 양식을 수용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조선 백자는 각 시기마다 명대 자기의 영향을 받았지만, 주체적인 입장에서 조선의 미감에 맞게 명대 자기 양식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조선적인 특징을 지니며 발전하

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더욱 새로운 자료가 발굴·분석되며, 경덕진 백자 외에 용천요계 청자, 자주요계 자기와와의 영향 관계, 조선과 명의 역사적 배경·도자사적 배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조선 백자에 보이는 명대 자기의 영향과 조선 백자의 특징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주제어(key words) _ 朝鮮 白磁(Joseon white porcelains), 官窯(*Gwanyo*; Royal kilns), 靑畵白磁(Blue-and-white porcelains), 粉色沙器(*Bunsacksagi*), 朝明交流(cultural exchange between Joseon Korea and Ming China), 景德鎮(*Gyeongdeokjin*; Jingdezhen), 明代 磁器(Ming-dynasty ceramics).

■ 투고일 2011년 2월 21일 | 심사개시일 2011년 3월 12일 | 심사완료일 2011년 3월 31일 ■

참고문헌

1. 史料

『窺天外乘』

『別洞集』

『明宣宗實錄』

『明英宗實錄』

『明史』

『明書』

『陶說』

『歷代寶案』

『朝鮮王朝實錄』

2. 圖錄

국립대구박물관, 『우리 문화속의 中國 陶磁器』, 2004.

국립제주박물관, 『탐라와 유구왕국』, 2007.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中國陶磁』, 2007.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선도자 500년전』, 2003.

湖巖美術館·三星美術文化財團, 『朝鮮白磁展 I』, 1983.

_____, 『朝鮮白磁展 II』, 1985.

海剛陶磁美術館, 『海剛陶磁美術館』, 1990.

湖林博物館, 『朝鮮白磁名品展』, 2003.

故宮博物院編, 『故宮博物院藏 明初菁花瓷』上·下, 紫禁城出版社, 2002.

穆青·汤伟建, 『明代民窯青花』, 河北人民出版社, 2000.

北京市文物研究所編著, 『北京 毛家灣 出土瓷器』, 科學出版社, 2008.

炎黃藝術館編, 『景德鎮出土元明官窯瓷器』, 文物出版社, 1999.

中國陶瓷全集編輯委員會編, 『中國陶瓷全集』12·13 明, 上海人民美術出版社, 2000.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李朝陶磁500年の美』, 1987.

林屋晴三, 『安宅コレクション 東洋陶磁名品圖録』李朝篇, 日本經濟新聞社, 1980.

出羽桜美術館, 『李朝工藝: 出羽桜コレクション』李朝篇, 1987.

3. 發掘報告書

高麗大學校博物館, 『坡平尹氏 貞靖公派 墓域 調査 報告書』, 2003.

國立中央博物館, 『廣州郡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 報告書—道馬里1號窯址—』, 1995.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京畿道廣州中央官窯』解說篇, 2000.

_____, 『京畿道廣州中央官窯』圖版篇, 2000.

서울역사박물관, 『원각사지 시굴조사 보고서』, 2002.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韓國道路公社, 『廣州朝鮮白磁窯址發掘調査報告—樊川里 5號·仙東里2,3號』, 1986.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展—附 廣州 牛山里 9號窯址 發掘調査報告—』, 1993.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경기도 광주시, 『廣州 樊川里 9號 朝鮮白磁窯址』, 2007.

鄭良謀, 尹龍二, 金得豊, 『韓國白磁陶窯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시 신청사 건립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2차 지도위원회 자료집』, 2009.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시 신청사 건립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3차 지도위원회 자료집』, 2009.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토지공사, 『청주 용암유적(I)』, 2000.

海剛陶磁美術館, 『광주 우산리 백자요지』, 1995.

_____, 『廣州 牛山里 白磁窯址(II)—17號 白磁窯址 試掘調査報告書—』, 1999.

湖巖美術館, 『山本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陶窯地遺蹟』, 1990.

4. 單行本

姜敬淑, 『韓國陶磁史』, 一志社, 1989.

_____, 『한국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000.

_____,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사, 2005.

경기도 박물관 편, 『檜巖寺: 문혀 있던 조선 최대의 왕실사찰』, 열린아트, 2003.

國立中央博物館 編著, 『高麗·朝鮮의 對外交流』, 2002.

金英媛, 『朝鮮前期 陶磁의 研究—分院의 設置를 中心으로』, 學研文化社, 1995.

_____,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방병선,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도자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방병선, 이성주, 이종민, 전승창, 최종택 공저, 『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다시 태어나다』(국사편찬위원회, 2010).

朴元煥, 『明初朝鮮關係史研究』, 一潮閣, 2003.

尹龍二, 『韓國陶磁史研究』, 文藝出版社, 2001.

-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1991.
- 耿寶昌, 『明清瓷器鑑定』, 紫禁城出版社·兩木出版社, 1993.
- 陸錫興 主編, 『中國古代器物大詞典—器皿』, 河北教育出版社, 2001.
- 方李莉 著, 『景德鎮民窯』, 人民美術出版社, 2002.
- 裴光輝 著, 『空白期青花瓷』, 福建美術出版社, 2002.
- 謝明良 著, 『美術考古叢刊 6 貿易陶瓷與文化史』, 允晨文化實業股份有限公司, 2005.
- 劉金成 編著, 『高安元代窖藏瓷器』, 條華出版社, 2006.
- 曹新吾 主編, 『瓣識明代民窯青花 罐』, 湖北美術出版社, 2003.
- 鐵源 主編, 『明清瓷器紋飾鑑定—龍鳳文飾卷』, 華齡出版社, 2000.
- _____, 『明清瓷器紋飾鑑定—圖案文飾卷』, 華齡出版社, 2002.
- _____, 『明清民窯瓷器鑑定—洪武·永樂·宣德 卷』, 朝華出版社, 2005.
- _____, 『明清民窯瓷器鑑定—正統·景泰·天順 卷』, 朝華出版社, 2005.
- _____, 『明清民窯瓷器鑑定—成化·弘治·正德 卷』, 朝華出版社, 2005.
- 蔡超, 鐵源, 劉詩中 主編, 『瓣識明代民窯青花 瓶』, 湖北美術出版社, 2004.
- 矢部良明, 『日本陶磁の一万二千年』.
- 長谷部樂爾, 今井敦, 『日本出土の中國陶磁』, 平凡社, 1995.

5. 論文

- 姜敬淑, 『15세기 경기도 광주 백자의 성립과 발전』, 『美術史學研究』237, 韓國美術史學會, 2003, pp. 75-101.
- 김영원, 『한반도 출토 중국도자』, 『우리 문화 속의 중국도자기』, 국립대구박물관, 2004.
- _____, 『조선 전반기 도자의 대외교섭』, 『朝鮮 前半期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6.
- _____, 『한국과 중국의 도자교류, 10~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中國陶磁』, 국립중앙박물관, 2007.
- 金允貞, 『高麗後期에서 朝鮮初期 象嵌青磁에 나타난 元代 磁器의 影響』,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3.
- 권소현, 『조선시대 상감백자의 편년연구』, 『美術史學研究』240, 韓國美術史學會, 2003, pp. 77-117.
- 尹龍二, 『광주관요의 변천과 청화백자』, 『朝鮮白磁展Ⅱ』, 호암미술관, 1985.
- 尹傲靖, 『朝鮮 15-16世紀 靑畫白磁 研究』, 梨花女子大學教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2.
- _____, 『朝鮮 15·16세기 靑畫白磁의 製作과 使用—문헌자료와 요지출토품을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250·251, 韓國美術史學會, 2006, pp. 315-360.
- 李相起, 『朝鮮前期 靑華白磁』,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 田勝昌, 『조선 초기 명나라 청화백자의 유입과 수용 고찰』, 『美術史學研究』264 (韓國美術史學會, 2009), pp. 35-62.

- _____, 「15~16세기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 관요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鄭良謨, 「朝鮮白磁, 靑華白磁」, 『韓國美術史의 現況』, 圖書出版 藝耕, 1992.
- 金恩慶, 「15世紀中期中國景德鎮靑花瓷研究—兼談15世紀朝鮮官窯相關議題」, 國立臺北藝術大學 美術史研究所 碩士學位論文, 2010.
- 梁穗, 「景德鎮珠山出土的元明官窯瓷器」, 『景德鎮出土元明官窯瓷器』, 文物出版社, 1999.
- 劉良佑, 「景德鎮出土明初官窯標本試析」, 『鴻禧文物』創刊號, 鴻禧藝術文教基金會, 1996.
- 穆青, 「明代民窯靑花」, 『明代民窯靑花』, 河北人民出版社, 2000.
- 余家棟, 「明晚期景德鎮瓷器特徵述略」, 『中國歷代景德鎮瓷器·明卷』, 中國攝影出版社, 1998.
- 廖寶秀, 「宣德官窯瓷器豐富性之研究(上)」, 『故宮學術季刊』第16卷, 國立故宮博物院編輯出版, 1998.
- 耿寶昌, 「明代中晚期靑花釉里紅瓷器概述」, 『靑花釉里紅』(中),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 藤岡了一, 「明初の磁器」, 『世界陶磁全集』14 明, 小學館, 1993.
- 佐久間重男, 「明代の陶磁と歴史的背景」, 『世界陶磁全集』14, 小學館, 1993.
- 矢部良明, 「景德鎮民窯の展開」, 『世界陶磁全集』14, 小學館, 1993.
- 長谷部樂爾, 「成化·弘治·正徳の官窯磁器」, 『世界陶磁全集』14, 小學館, 1993.
- 三上次男, 「沖繩出土の中世中國陶磁について—中世沖繩と中國陶磁貿易の接点を求めて」, 『陶磁貿易史研究』上: 東アジア·東南アジア編, 中央公論美術, 1987.

국문초록

본 논문은 15·16세기 조선 백자에 보이는 명대 자기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도자관련 문헌기록과 유적 출토품을 분석하여 유입된 명대 자기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둘째, 조선 백자와 명대 자기의 양식을 비교 분석하여, 조선 백자에 보이는 명대 자기의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셋째, 이를 종합하여 세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마다 조선 백자가 명대 자기 양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변화시켜 가는 지 그 수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1기(1392-1450년경)는 명대 자기의 공식적인 유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선 백자의 발, 병의 기형에서 원대 자기의 영향을 받은 고려의 전통이 지속되면서도, 새로운 명대 자기의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2기(1450-1500년경)에는 발, 병을 비롯해서 호, 뚜껑의 기형과 화당초문, 운룡문, 문자문, 칠보문, 변형운문 등에서 명대 자기의 양식이 수용되었다. 그런데 2기에 수용된 양식은 변형운문 외에 대부분 1기에 유입된 영락·선덕·정통연간의 양식이었다. 이는 당시 조선의 경우 양질의 백자와 청화백자가 제작되고, 관요가 설립되는 등 제도적으로도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던 시기인 반면, 명의 경우 정치적·경제적 혼란기였던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곧 조선은 본격적으로 백자와 청화백자를 생산하는 시기였지만, 더 이상 명대 자기의 공식적인 유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1기에 다량 유입되었던 명대 자기의 양식을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선 백자의 수용태도에도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2기 후반기가 되면 사무역을 통해 새로운 명대 자기가 유입되는데, 그 영향은 보조문양인 변형운문에서만 보인다. 곧 조선 백자가 명대 자기의 양식을 무조건적이 아닌 선택하여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명대 자기의 요소가 보이는 백자와는 별도로 양이잔, 전접시, 편병, 연적, 구연이 외반하여 말린 입호, 원호 등의 기형과 시문, 회화적인 송죽매 계열 등의 문양이 시문된 조선 백자가 다수 제작되고 있었음은 이를 또한 반증해 준다. 3기(1500-1592년경)에는 조선 백자가 2기에 수용한 명대 양식을 조선적으로 변화시키며 발전하고 있었으며, 이와 함께 병과 접시, 문자문, 내저면의 청화원관 등 일부 기형과 문양에서 16세기에 유입된 명대 자기 양식을 수용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조선 백자는 각 시기마다 명대 자기의 영향을 받았지만, 주체적인 입장에서 조선의 미감에 맞게 명대 자기 양식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조선적인 특징을 지니며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Influence of Ming-Dynasty Ceramics on 15th-16th Century Joseon White Porcelains

Lee Hyun-jeong *

This paper examines the influence of Ming-dynasty Chinese ceramics on Joseon white porcelains of the fifteenth to sixteenth century. To understand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Ming ceramics influenced Joseon white porcelains during this period, I first try to establish the types of Ming-dynasty ceramics that were imported into Joseon, based on documentary sources available in Korea and elsewhere and archaeological finds. Secondly, I compared the white porcelain of Joseon with that of Ming China, and tried to find out the influence from the Chinese dynasty. Thirdly, I divided the ceramic art of Joseon into three periods, and discussed the process in which Joseon white porcelains accepted the influence from Ming and changed it to their own style.

During the first period (circa 1392-1450), the achievement of Ming in the ceramic art flooded into Joseon, resulting in the appearance of the Ming's influence while the Goryeo's tradition formed under the influence from Yuan was still maintained as represented by the form of the Joseon's white porcelain bowls and bottles.

During the second period (circa 1450-1500), the influence from the style of Ming's ceramics is clear in the shape of the bowl, vase, jar and vessel lid as well as the use of floral and vine,

* MA, Korea University

cloud and dragon, Chinese characters, auspicious seven objects and modified cloud design. The styles adopted in the second stage reflect, except for the modified cloud design, the styles developed in China during the reign of Yongle, Xuande and Zhengtong and imported in the first stage. I assume that the situation can be explained by that Ming was put into a period of political and economic unrest while Joseon was able to produce high-quality white porcelain and blue-and-white porcelain and established an effective production system as represented by the successful operation of *gwanyo* (royal kiln). Joseon was now in a stage of full-fledged production of white porcelain and blue-and-white porcelain, and the influence from the Ming ceramics had now ceased. The characteristics in this period therefore can be traced back to the Ming styles introduced extensively in the first period. This also had to do with the selective manner in which Ming-dynasty ceramics were imported to Joseon. During the later part of the second period, there was a sizeable amount of Ming ceramics imported into Joseon through non-official trade. But the stylistic elements traceable to the Ming dynasty from around this time are only modified cloud design, which were used as secondary motifs. In other words, Joseon white porcelains adopted the Ming styles not unconditionally but selectively. During this same period, aside from Ming dynasty-influenced white porcelains, many other types of white porcelains were produced in Joseon, including originally-shaped vessels such as cups with two handles, dishes with a wide and flat rim, flat bodied-vases, water droppers and tall and round jars with the rims of their mouth rolled outward, and vessels decorated with poetic motifs, figurative designs showing pines, bamboo, apricot trees; yet more evidence of the selective and discriminating approach to yielding to external influence.

During the third period (circa 1500-1592), Ming-dynasty stylistic elements received during the second period were assimilated and reinvented by adding native elements. Some of the elements of sixteenth-century Ming-dynasty ceramics were also received at this time, as attested to by the shapes of vases and plates as well as Chinese character motifs and rolled-out ring-shaped motifs in underglaze cobalt-blue used on the inside of a vessel.

Through discussions of the above-described three periods, this study shows that Joseon porcelains selectively embraced the influence of Ming-dynasty ceramics, choosing only those elements that suited the native aesthetic and used them to take the local tradition of white porcelain-making to the next level in a manner not to sacrifice its own original style.